



지상파 방송 콘텐츠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이용행태 조사 분석

최윤동* 김성민** 박광만**

디지털화에 따라 방송 콘텐츠 배포의 용이성, 신속성, 복제의 질적 향상과 조작과 편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불법적 유통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이용 행태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일반적 이용 현황 및 불법적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고를 통해 방통융합시대에 진입한 현재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이용행태의 불법이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콘텐츠 보호방안 및 새로운 유통구조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목	차
I.	서 론
II.	조사의 개요
III.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 현황
IV.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불법적 이용 현황
V.	지상파 방송 콘텐츠 보호 방안 모색
VI.	결 론

I. 서 론

IPTV와 DMB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출현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플랫폼으로써의 지상파 방송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콘텐츠로서의 중요성과 지배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DMB,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 문제가 신규 서비스 활성화의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방식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의 유통혁신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유통이 방송 콘텐츠의 성공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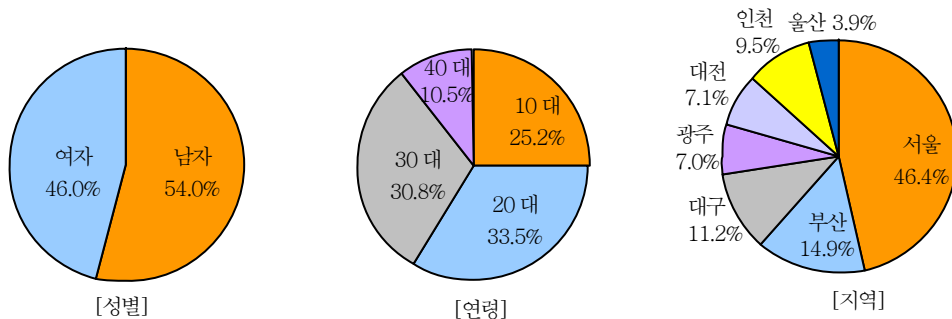
* ETRI 기술경제 1팀/연구원
** ETRI 기술경제 1팀/선임연구원

나라 생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의 출현은 새로운 영상전달 매체와 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예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콘텐츠를 복제 유통시킴으로써 방송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배포의 용이성, 신속성, 복제의 질적 향상과 조작과 편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방송 콘텐츠의 불법유통은 영상물의 독특한 경제적 특성인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통한 2 차, 3 차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지상과 방송 콘텐츠의 이용 행태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지상과 방송 콘텐츠의 이용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지상과 방송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 현황으로 ① 지상과 방송 이용 현황 ② 홈페이지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상과 방송의 불법적 이용 현황으로 ① 홈페이지 이외 인터넷 시청 행태 ② 콘텐츠 업로드 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상과 방송 콘텐츠 보호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뉴미디어와의 관계 및 지상과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적 보호조치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본 고를 통해 방통융합시대에 진입한 현재의 지상과 방송 콘텐츠의 이용행태의 불법이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상과 방송 콘텐츠 보호방안 및 새로운 유통구조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사의 개요

지상과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시청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및 6 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40 세의 남/여 1,000 명을 대상으로 2009 년 1 월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



(그림 1) 응답자 특성

시하였다. 표본 추출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통계정보를 참고하여 전국 인터넷 사용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샘플 쿼터를 산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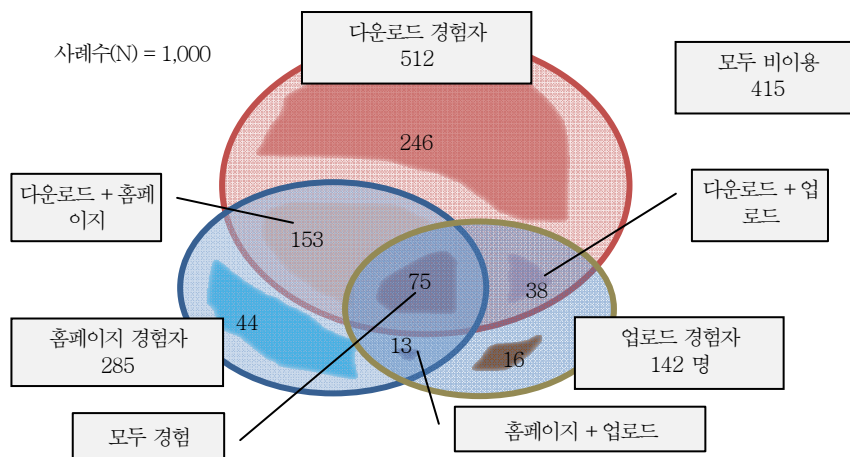
III.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 현황

1. 지상파 방송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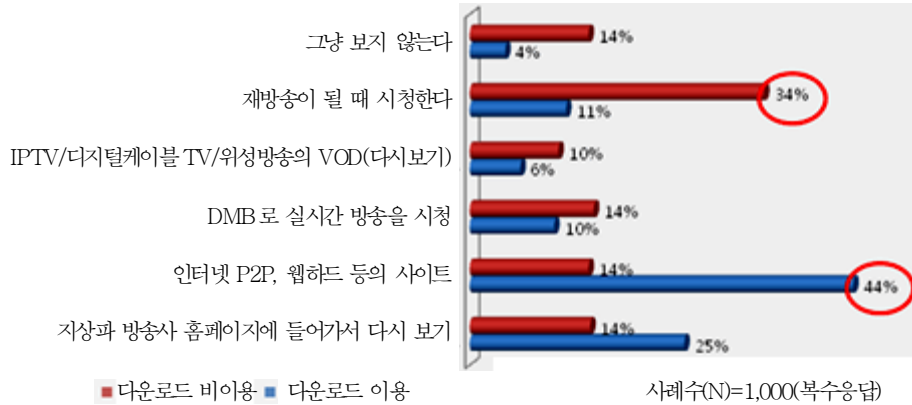
TV 를 시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직접수신이 20.6%, IPTV 9.6%, DMB 9.3%, PC 를 통한 TV 수신이 8.6%, 위성방송 6.8% 등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을 백분율로 환산).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은 디지털 TV(셋탑박스 포함)는 37.6%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PVR 이나 비디오 레코더 등의 녹화장비는 35.8%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지상파 방송 이용 행태별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다운로드 경험자가 512 명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 경험자 285 명, 업로드 경험자 142 명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415 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복 경험자로는 다운로드 이용과 홈페이지 이용 경험자가 153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 홈페이지, 홈페이지 이외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모두 경험한 응답자도 75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들에 대해 집에서 TV 시청이 어려운 경우,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재방송이 될 때 시청한다”는 의견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P2P, 웹하드 등에



(그림 2) 인터넷을 통한 지상파 방송 이용행태별 응답자 구성



(그림 3) 다운로드 경험 여부에 따른 TV 시청방법

서 다운로드/스트리밍을 통해”라는 의견이 3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운로드 이용 그룹과 비이용 그룹별로 살펴보면 다운로드 이용 그룹은 “인터넷 P2P, 웹하드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을 통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이용 그룹은 “재방송 시청”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언제나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 제공한다는 IPTV/디지털케이블/위성방송”의 이용률은 다운로드 이용자가 6%, 비이용자가 10%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 이용 현황

여기에서는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의 이용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8.5%는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월 소득이 높을수록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 다운로드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뉴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DTV를 이용할수록, 업로드 및 다운로드 경험이 많을수록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운로드 하는 콘텐츠는 예능, 오락이 40.7%(중복응답시 68.4%)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마 36.5%(중복응답시 61.8%)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운로드에 있어서는 고화질(HD 급)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61.8%로 일반 화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운로드를 자주 받는 사람일수록 고화질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금액에 있어서는 1,000 원 이하가 67.8%를 차지하였으며, 스폰서 홈페이지 가입 등을 통한 무료이용도 3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는 회수를 살펴보면 1 회가 23.7%, 2 회가 14.1%,

3~5 회가 15.5%, 6~24 회가 27.2%, 25 회 이상이 19.4%로 조사되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1인당 연평균 다운로드 회수는 25 회로 조사되었는데, 평균 미만 이용자가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는 그 이유로 ‘비싸다’는 의견이 41.8%, ‘불편하다’가 20.0%, “인터넷 상에서 받는 것이 검색하기가 편리하다”는 의견이 18.3% 등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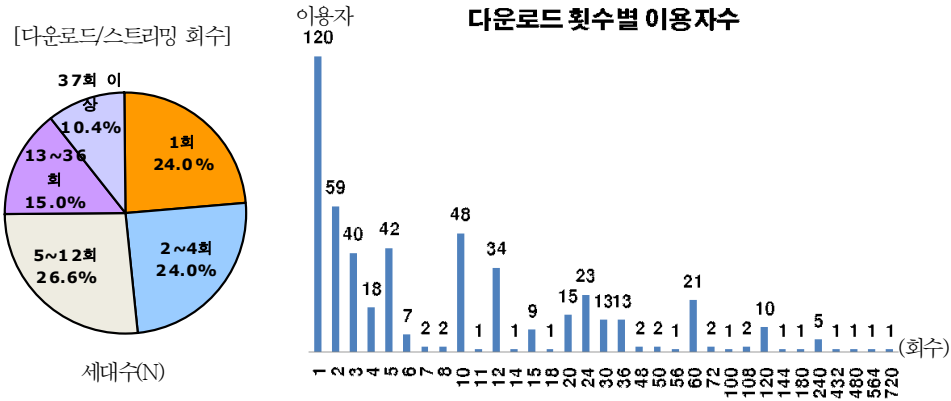
한편 지상파 각 방송사별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여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방송사별로 따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사별로 따로 결제해야 하므로 할인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 20.7%, “방송사별로 홈페이지 구성에 차이가 많이나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15.3% 등으로 조사되어 방송사의 홈페이지 통합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불법적 이용 현황

1.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 이외 인터넷 시청행태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 이외의 P2P 서비스나 웹하드, 포털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대부분이 불법적 이용이 된다. 이는 아직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콘텐츠를 정식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P2P의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경우 현행 저작권보호법상 이들을 명백하게 불법이라 규정짓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1], 설사 불법으로 단속하더라도 이를 단속하여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수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불법적 이용을 비즈니스 모델 삼아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5].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51.2%가 지상파 홈페이지 이외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대와 30대에서,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운로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 이용 방식별로는 IPTV, DMB와 같은 뉴미디어 이용자일수록 다운로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뉴미디어 이용자들이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DTV 보유 여부에 따른 다운로드 이용 비율을 보면 DTV 보유자들일수록 다운로드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DTV 보유자들이 미디어에 대한 적



(그림 4)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 이외 인터넷 시청 행태

극적인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DTV 보유로 TV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미디어 수용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운로드 이용자의 평균 다운로드 회수는 연평균 20.76 회로 한 달에 1.73 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 정도의 응답자가 평균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와 같이 일년에 1~5 회 가량 이용하는 응답자가 279 명으로 다운로드 이용자의 54%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다운로드 평균회수가 높은 것은 1년에 100 회~700 회까지 다운로드를 매우 자주 이용하는 극소수의 이용자들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다운로드하는 콘텐츠는 예능, 오락이 40.4%(중복응답 시 70.9%)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마 37.7%(중복응답 시 61.7%), 음악 7.2%(중복응답 시 13.7%), 영화 7.0%(중복응답 시 18.6%) 순으로 나타났다. 다운로드/스트리밍의 주요 이용 단위를 보면 프로그램 한편을 모두 받는 경우가 70.1% 가장 높았으며 짧은 단위 동영상은 22.3%, 스크랩물이 7.0%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운로드하는 회수에 있어서 5~12 회가 26.6%, 2~4 회가 24.0%, 1 회가 24.0% 순으로 나타났다.

다운로드/스트리밍 콘텐츠 방영시기별 이용률(홀드백 기간)은 1~2 일 이전 프로그램이 36.3%, 3~7 일 이전 프로그램이 35.5%, 7~14 일 11.7% 순으로 조사되어 주로 최근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텐츠 별로 보면 드라마의 경우가 1~2 일 이전 프로그램을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요 부분 또는 선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12.1%,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골라볼 수 있기 때문”이

10.7%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48.8%는 지상파 홈페이지 이외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들기 때문에”가 37.5%, “재방송으로 시청하면 되기 때문”이 26.0%,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용하지 않음”이 14.5% 순으로 나타났다.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적(가족 내에서)으로만 소장한다”가 77.0%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시청 후 삭제”가 7.0%, “P2P, 웹하드,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한다”는 의견은 6.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포털사이트가 36.3%이며, 판도라 TV 33.0%, 클럽박스 31.1%, 아프리카TV 28.5%, 피디박스 21.3%, 다음 TV 팟 19.7%, 푸르나 19.3%, 엠엔캐스트 17.2%, 파일구리 15.2%, 당나귀 12.7%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허용).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53.4% 수준이었으며 월평균 사용료로 5,409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결제는 주로 핸드폰(48.7%)이나 신용카드(22.7%), 상품권(11.0%), 계좌이체(10.6%)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2. 지상파 방송 콘텐츠 업로드 행태

전체 응답자의 14.2%가 지상파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TV 보유자와 녹화기기 보유자의 업로드 경험율이 20% 이상으로 DTV 및 녹화기기 미보유자 10%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PTV, 위성방송 등에 대한 가입 희망자들의 경우 타 이용자들에 비해 업로드 경험이 3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층으로 방송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과 인터넷을 통한 업로드 다운로드 활동을 모두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업로드 경로는 카페, 블로그가 30.3%, P2P 사이트가 29.6%, 웹하드 16.2%, 포털사이트 15.5%, 이메일/메신저 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예능, 오락이 35.2%(중복응답 59.2%)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마 33.8%(중복응답 46.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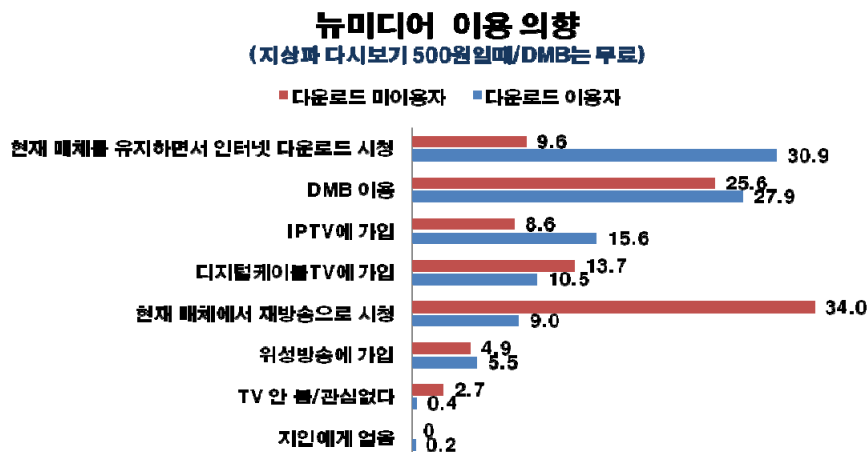
업로드하는 회수에 있어서는 5~12 회가 28.6%, 1 회가 17.9%, 2~4 회가 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로드 경험자들의 연평균 업로드 회수는 30.1 회였으나, 85%의 업로드 이용자들이 평균보다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사용자가 비교적 많이 업로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로드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52.1%, “다른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23.9%, “포인트나 돈을 벌 수 있어서”가 13.4%, “조회수 높이기 위해”가 7.0% 순으로 나타났다.

V. 지상파 방송 콘텐츠 보호방안에 모색

1. 뉴미디어를 통한 불법 이용 대체 가능성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를 꼽았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뉴미디어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불법적 이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체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즉 IPTV,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과 같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상파 TV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단, DMB 를 제외한 매체는 500 원의 이용료 부과할 것으로 제시), 지상파 TV 다시 보기에 대한 방안에 있어서 “DMB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시청하겠다”는 의견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매체에서 재방송으로 시청”이 21.2%, “인터넷으로 다운로드/스트리밍으로 시청”이 2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운로드 이용자의 경우 “현 매체를 유지하면서 인터넷 다운로드 시청”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MB 이용”이 27.9%, “IPTV 가입” 15.6%,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 10.5%로 뉴미디어를 이용한 시청으로의 전환이 5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IPTV/DMB 이용과 인터넷 다운로드 빈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IPTV/DMB 이용 시 다운로드 빈도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이 74.4%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보였고, 반면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은 25.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IPTV/DMB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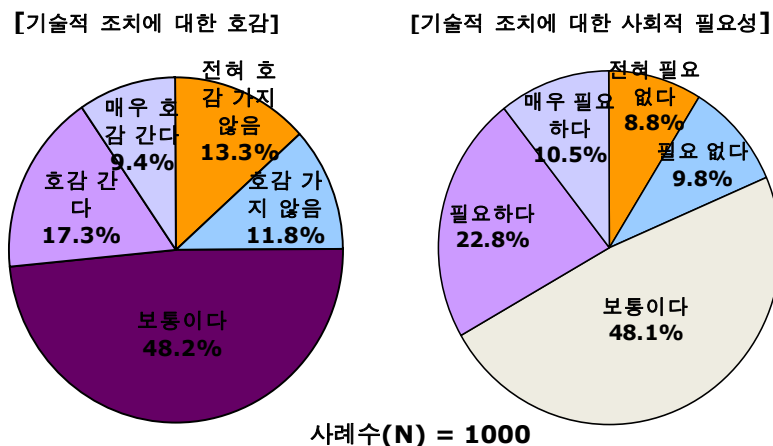
(그림 5) 지상파 TV 다시보기를 위한 뉴미디어 이용 의향

스트리밍 빈도변화의 경우, 응답자들 중 IPTV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자의 경우 인터넷 다운로드/스트리밍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총 90%에 이르러 IPTV가 인터넷 다운로드를 대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DMB, 디지털 케이블 TV, 위성방송 이용자들의 80% 가량이 인터넷 다운로드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 법적 보호조치 가능성

지상파 방송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40.5%, 모르는 경우가 33.4%로 이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저작권 동의 없이 업로드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47.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6.8%는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P2P 기술이 적용되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콘텐츠가 자동으로 업로드되면서 불법 업로드가 되며, 이용자가 P2P 사이트에서 유료로 콘텐츠를 구매하더라도 사업자 자체가 불법인 경우, 불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P2P 이용의 불법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모른다’는 의견이 41.6%로 저작권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33.4%)와 업로드의 불법성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2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불법행위에 대한 비의도적 노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에 해당되는 콘텐츠 이용을 알게 된 후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이용이 어떻게 변화하겠느냐는 응답에 45.9%의 응답자가 “이용을 계속 할 것 같다”라고 응답하여, 불법 콘텐츠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저작권 관련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인식

저작권법 고소에 대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가 17.4%로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 사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고(53.7%), 선의의 인터넷 이용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61.3%)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34.3%의 응답자만이 동의하였고,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에 32.8%가 동의하여, 법적인 조치 및 자발적 준수여부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3. 기술적 보호조치

지상파 DTV 방송 프로그램 보호기술은 지상파망을 통해 전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는 단말로 하여금 녹화 및 재전송 시 수신된 보호 정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통해 무단 재배포 또는 재전송을 방지한다. 이러한 기술로는 미국에서는 Broadcast Flag 도입을 위해 FCC가 승인한 13가지 기술이 있으며, 유럽에서는 DVB-CPCM(Content Protection and Copy Management) 스펙을 사용하는 보호 기술을 표준화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B-CAS 기술을 통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기술은 콘텐츠의 사적 이용은 제한적 또는 무제한 허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재배포 또는 재전송을 방지하고 있다[6].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호감’이 26.7%, ‘비호감’이 25.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보통이 48.2%로 유보적인 의견을 많이 보였으며, 기술적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가 33.3%로 ‘필요 없다’는 응답 18.6%과 대비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업로드 이용자들이 비호감도가 43.7%,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5.9%로 업로드 미이용자 및 평균치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인터넷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비해 업로드 이용자들이 기술적 조치에 대한 비호감도 및 저항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 조치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어렵다’, ‘복잡하다’, ‘기술이 완벽하지 않을 것 같다’는 등의 우려도 있으나,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현재처럼 ‘저렴하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불법 콘텐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렴하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60% 가량의 이용자들이 지상과 방송 콘텐츠를 보기 위해 기존의 TV 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지상과 방송 콘텐츠에 대해 투자하고 제작하는 지상과 방송사에게 수익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법적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50% 가량이나 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상과 방송 콘텐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지상과 방송사의 잠재적 피해규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최소 92억 원에서 최대 3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이러한 불법유통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고유/개방 웹 2.0 특성, 법/제도의 미흡, 이용자의 저작권 관련 낮은 의식 수준과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저렴한 가격, 다양한 콘텐츠 이용/사용 편의성,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환경 등이 지적되고 있다[2]. 본 고에서는 방통융합의 진전으로 과거 수동적인 이용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되는[3] 반면, 가장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지상과 방송 콘텐츠의 유통체계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설문 결과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등장하였으며, 지상과 방송 콘텐츠 복제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상호작용하며 자생적으로 그 유통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뉴미디어 이용의 활성화는 일부 다운로드 이용자들의 불법적 콘텐츠 이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할 정도로 TV 이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다운로드 이용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 분석 결과 법적 보호조치조차 이용자들의 죄책감을 늘이기는 하지만 이용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상과 방송 콘텐츠를 보호하고 선의의 불법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은 사전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지상과 방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기태,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 7-2 호, 2006, pp.96-127.

- [2] 박용진, “디지털 방송 콘텐츠 보호조치 참여주체별 입장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세미나, 2009. 1, pp.21-34.
- [3] 심미선, “융합환경 하에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8 년 봄호 제 6-2, pp.7-44.
- [4] 윤호진 외 4 인, “방송 콘텐츠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 KBI 연구보고서, 2007. 12.
- [5] 이대희,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세미나, 2009. 1, pp.37-48.
- [6] 추현곤 외 2 인, “지상파 DTV 방송 프로그램 보호기술 특허 동향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 권 제 6 호, 2007. 12.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